

# 원희룡 장관,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안전문제 반드시 해결”

## - 14일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 만나 혼잡해소 강력 당부 -

- 지난 11일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대책 수립을 특별히 지시함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14일(금) 긴급히 김포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하여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김포시와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 원 장관은 “호흡곤란 안전사고에 대해 교통 전체를 최종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고통을 겪으신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라면서,
  -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골드라인을 탑승하시고 GTX-D 개통과 5호선 김포연장을 공약으로 하였고,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근본대책은 될 수 있지만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특히, 대체 교통수단인 셔틀버스(전세버스) 확대를 위해 버스 전용차로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김포시 관할인 고촌~개화는 버스전용차선이 지정되었으나,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는 지역은 지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 “국토부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고, 고촌·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을 직행하는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시민들께서 체감가능한 수준까지 전폭적으로 투입하겠다.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버스전용차로 문제에 임해주기를 고대한다. 국토부는 언제라도 서울시와 적극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증편 예정인 6편성 열차도 3개월 앞당겨 순차적으로 선 투입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5호선 김포연장 세부노선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등 대체 노선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단기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 김포시, 철도운영기관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겠다”라면서,
  
- 마지막으로 “이번에 논의된 대책들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면밀히 챙겨, 시민분들께서 체감가능한 수준으로 김포골드라인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 4. 14.

국토교통부 대변인